진로 체험 뒤 다음 질문을 만드는 세 가지 기록

똑똑 · 에디터 새봄 · 발행 2026.10.06

재미있었다는 느낌만으로 직업을 고르지 않습니다. 한 장면에서 본 일·내 행동·모르는 점을 나누면 다음 탐색이 시작됩니다.

똑똑 자체 작성 해설. 글 속 숫자·인물·상황은 명시한 가상 학습 예시이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쉬운 설명

체험 후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골라요. 실제로 본 일, 내가 해 본 일, 더 알고 싶은 일을 따로 적으면 다음 질문이 떠올라요.

핵심

- 체험의 한 장면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록합니다.
- 관심과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합니다.
- 확인 가능한 후속 질문을 한 개 선택합니다.

세 칸 · 본 일·한 일·모르는 일

진로 체험에서는 일의 이름보다 하루의 실제 업무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디자이너가 멋있었다”보다 “회의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적고 시안을 두 번 고쳤다”가 다음 질문을 만듭니다. 내가 직접 한 일도 관찰한 업무와 섞지 않습니다. 한 시간의 체험은 그 직업의 모든 근무 환경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Careers New Zealand의 진로교육 자료는 막연한 취향 대신 특정 경험 이야기를 끌어내어 즐거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 사용한 기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직업을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닙니다.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를 늘려 새로운 탐색 선택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가상 기록 · 도서관 체험의 세 문장

가상 사례: 민서는 도서관 프로그램 준비를 두 시간 지켜보았습니다. 담당자가 행사 안내문을 고치고,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책을 고르는 이용자의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서는 안내 문구의 길이를 줄이는 일을 직접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작성이나 장기적인 업무 일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일이 나와 잘 맞는다”는 큰 결론은 이 장면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짧은 안내를 쓰는 일이 흥미로웠다”는 관심과 “읽는 사람이 헷갈리는 표현 두 개를 고쳤다”는 행동 근거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내문을 만들 때 이용자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처럼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기록 칸	민서의 메모	다음에 확인할 것
본 일	이용자의 질문을 듣고 책을 제안함	어떤 자료로 제안했나
해 본 일	행사 안내 두 문장을 고침	읽는 사람에게 이해됐나
못 본 일	예산·장기 일정	실제 업무에서 비중은 얼마인가

민서와 체험은 가상이며 특정 직업의 업무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문 만들기 · 세 방향으로 후속 탐색

첫째, 관찰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하루 중 특별한 행사 장면만 보았다면 평소 업무의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기술을 묻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해 볼 수 있는 작은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험에서 빠진 조건을 묻습니다. 팀과 협력하는 방식, 실내외 활동, 일정의 변동 같은 조건은 직업 이름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이 직업이 좋은가요?”보다 “행사 없는 날에는 어떤 자료를 정리하나요?”처럼 답할 범위를 좁힙니다. 답을 들으면 날짜와 누구의 경험인지 표시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반례 · 재미없었던 체험도 정보가 됩니다

체험이 지루했다고 해서 해당 분야 전체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듣는 시간만 길고 직접 해 볼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활동이 재미있었다고 그 직업의 모든 일과 조건이 잘 맞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활동의 성격과 체험 방식을 함께 적어야 판단이 공정해집니다.

사람마다 접근 가능한 체험이 다릅니다. 직접 방문할 수 없었다면 공개된 업무 인터뷰나 직업 소개 자료를 보며 같은 세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영상은 제작자의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노동 조건을 그대로 대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자료의 빈 곳을 다음 탐색 주제로 적어 두세요.

실행 · 질문 하나를 행동 하나로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세 개 뽑은 뒤 가장 작은 질문 하나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 “안내문을 어떻게 시험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친구에게 실제 안내문을 읽어 보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묻는 작은 연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내가 안내를 만드는 데 흥미가 있는지 살필 뿐 직업 적합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록에는 답이 바뀐 이유도 남깁니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좋았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질문을 듣는 일이 더 흥미로웠다면 그 변화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 경험을 거치며 관심과 기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줄을 평생의 선택으로 굳히지 않아도 됩니다.

체험 메모의 마지막에는 “다음에 볼 자료”를 한 줄 붙입니다. 민서라면 도서관의 실제 행사 안내문과 직무 소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자료가 다른 일을 강조하면 어느 자료가 어떤 독자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살핍니다. 질문을 자료 확인과 작은 활동으로 이어 가면 체험이 하루의 인상에서 탐색의 출발점으로 바뀝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가상 도서관 체험 메모에서 관찰 한 가지와 아직 모르는 한 가지를 골라 후속 질문으로 바꾸세요.

확인 설명

이용자의 질문을 듣고 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이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행사가 없는 날에도 이용자 상담은 하루에 어느 정도 하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개 직업 자료의 실제 업무 장면을 찾아 본 일·모르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해 본 일 칸은 비워 두거나 작은 모의 활동으로 채웁니다.

질문은 꼭 체험 담당자에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공개 자료를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한 질문만 적절한 기회에 물을 수 있습니다.

원문과 출처

- Careers New Zealand · Understanding Career Education in Years 7 and 8 — https://www.careers.govt.nz/assets/pages/year7-and-8/understanding-career-education-in-years-7-and-8-handbook-2009.pdf : printed pp.3-4, 8 (PDF pages 5-6, 10), The story/The reflection: 성급한 직업 결정보다 구체 경험에서 관심·기술을 성찰함.
- Tahat · How to find your career path — https://tahatu.govt.nz/get-inspired/discovering-who-you-are/how-to-find-your-career-path: Think about you / Compare your career ideas / Make decisions: 가치·기술·관심을 기록하고 직업 아이디어와 맞는지 비교함.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career-followup-questions